

농어촌공사 '농촌 재능나눔 봉사단체 공모'...18일까지 마감

등록 2022.02.14 16:27:43

기사내용 요약

일반단체 2000만원, 지역단체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나주=뉴스시스] 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농촌 재능 나눔활동을 통해 한 농촌 어르신이 한방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2.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스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지역 재능 나눔 확산을 위해 올해도 봉사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봉사단체 27곳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를 선발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단체가 소속된 지역에서 실질적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와 일반단체를 구분해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경제활성화, 주민건강·복지증진, 생활환경·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문화증진 등 4개 분야, 50여개 세

부 활동 분야 중에서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일반단체는 2000만원, 지역단체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분야 재능 나눔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구길모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농촌 재능 나눔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관심 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